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임형빈(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분야(주제) : 전통시장 정책

▣ 토론 요지 :

1. 지역 상권 차원에서 전통시장 문제 접근 필요
 -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만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상권차원에서 접근 필요
 - 시장과 주변 상권간의 협력, 시너지 도출을 위한 시설의 공동투자(주차장, 지원 시설 등)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을 통한 정책 집행 필요함.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문전성시 사업) 등의 사업추진 재원 활용방안 모색
 - 상권관리기구, 타운 매니저(시장 매니저)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지원
2. 물리적 투자보다는 시장내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키는 방안 모색
 - 시장내 상인들의 협력을 통한 시장 활력, 상인들의 자발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시장 매니저 도입하여 시장 상인들의 협력강화 및 잠재력 재고
 - 상인들의 자율적인 활동, 교육에 지원하여 자발적인 시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 추진
3. 홍보 마케팅 발상전환
 -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시 전통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주변 관광자원등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른 계획과의 연계 필요
4. 적극적인 행정력 통한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 개입
 - 공설시장의 상가 임대료, 빈점포 활용 등
5. 숨어있는 killer item 발굴 및 개발
 - 시장홍보 마케팅, 관광객 유치 가능한 아이템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이상준(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 토론 분야(주제) : 전통시장 정책

▣ 토론 요지 :

전통시장 정책은 낙후된 전통시장을 시설,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기초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문화관광형사업, 문전성시사업 등과 기타 타부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 지역이 주가 되는 것이다.

국가 정책에 기초하여 충청도 역시 전통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1,517개 전통시장 중 약 4.6%에 불과한 6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국 5번째(전국대비 8% 수준)의 사업건수와 국비 지원을 확보할 정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충청도 정책 기조인 내발적 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등과 맞물려 유기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지역과 밀착된 그래서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구성요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청도 스스로가 더 지역에 밀착되고 내발적이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정책 테두리에서 무슨 사업을 할까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역밀착형 전통시장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충청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전과 조직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지역 전통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 조직구조의 전문화, 규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